

관광거점도시 공동연수 전주서 개최

육성사업 추진 상황 공유·상호 협력 방안 모색

전주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도시들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에 모였다.

시는 6일과 7일 이틀간 베스트웨스턴플라스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대한민국 5개 관광거점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공동연수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관광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국제관광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와 강원도 강릉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연수 첫날인 6일에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성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컨설팅 방향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첫날 연수에서는 미디어아트 특강과 전주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전주시의 추진 상황을 관광거점도시들과 공유하고 컨설팅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연수 둘째 날인 7일에는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전주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거점을 견학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6일과 7일 이틀간 베스트웨스턴플라스호텔 등 전주시 일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대한민국 5개 관광거점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공동연수가 진행됐다.

“그간 전주가 축적해온 문화의 힘과 전주다움이라는 빛을 발휘해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관광거점도시

들과 협력해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들, 성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만성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대표 이흥재)들이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쌀달라며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서세현)에 110만 7430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돕기를 위하여 1월 18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재능기부로 떡볶이, 꼬치구이, 파전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이흥재 만성골드클래스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을 지어 음식을 구매했고, 기다리는 동안 불평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주변의 생활이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세현 혁신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만성골드클래스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사랑과 온정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부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과정을 거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출범

전주시민들을 대표해 완주군민 대표단과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완주·전주 통합의 길잡이가 될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이하 전주시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전남(5일) 전주시는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전주시의원, 공무원 등 위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이하 전주시민협의회)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통합 추진 경과 보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의결 △위원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완주지역 통합단체)가 전주시에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당시 완주군민협의회는 각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107개 사업을 전주시에 제안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 실효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추진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전주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활동기회는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총 7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 검토를 위한 분과회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3월까지는 완주군민협의회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최종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전주시민협의회는 또 완주·전주 통합 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간의 가교역할도 맡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완주전주 통합과정에서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주시민협의회 구성과정에 심의를 기울였다. 당장 계층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치인과 대학교수, 소상공인, 청년사업가, 봉사단체 대표, 여성기업 대표, 대학교 학생회장 등 여러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을 꾸렸다.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분과위원회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날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박진상 위원(효사량전주병원 원장)과 송병용 위원(전주시 새마을회 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갖고 부위원장 추가 1인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박진상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완주·전주 상생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50여 명의 위원분들 한분 한분이 전주시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대표이미지 확정

그림책 펼쳐며 미래로 힘차게 성장해가는 어린이와 즐거운 책 축제로 나아가자는 의미 담아

전주시는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표이미지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세계적인 작가가 성장한 국내 그림책 작가와 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작품속 가치와 배경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표이미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지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초청작가였던 이수지 작가의 작품이다. 이 작가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 그림책 삼부작’인 △파도야 놀자 △

그림자놀이 △겨울속으로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이미지를 살린 ‘여름이 온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국제 안데르센상과 불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작가가 그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표이미지는 전주에서 그림책을 펼쳐며 미래로 힘차게 성장해가는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책 축제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이미지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행사 관련 포스터와 플래카드, 기념품 등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완산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그림책 원화 전시 △작가와와의 만남 △콘퍼런스 △공연 △체험 △북마케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림책 원화전시는 6월 2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 대표이미지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00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전주시가 올해도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꼼꼼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주시지역 법인 및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100개 법인을 선정해 ‘2025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관련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상태로, 오는 14일 까지 회담하는 조사 시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농민과 농업회사법인,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을 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